

간곡한 당부에 담으신 뜻

2014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뵈옵게 된 병원일군들은 물론 의사, 간호원들, 치료를 받으려 온 사람들 모두가 커다란 흥분과 걱정으로 가슴설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병원의 치료실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병원운영에서 애로되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 군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우리의 병원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민의 병원으로 되여야 한다는 승고한 뜻이 담긴 간곡한 당부였다.